SNUAC Asia Square Brown Bag Seminar Series, Fall 2023

국제정세의 새로운 전개와 한일경제협력의 방향

정성춘

한일경제관계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20여 년에 걸쳐 그 중요성이 하락해 왔다. 무역비중을 보면 2001년 14.8%에서 2022년 6.0%로 하락하였고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도 2012년 45.4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국 경제관계의 침체는 수직분업구조의 악화와 기업 간 경쟁의 격화, 양국 정치관계의 부침 등에 의한다. 한일경제관계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르러 정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뿐이었다. 양국정부는 2023년에 들어 수출규제조치를 해제하고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제정세는 양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경제가 약화되고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자원가격의 지속적 상승 등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하락의 리스크도 높다. 기후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은 급속한 힘으로 몰아쳐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 재정악화, 생산성 저하에 따른 지속적인 저성장의 공통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안보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한일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희귀금속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전환 분야에서의 산업 및 기술협력,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기타 사회공통과제에 대한 협력 등에서 적극적인 교류와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정성춘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로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2년에 일본의 히토쓰바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03년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일본경제 및 환경경제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

Date & Time: Oct 31, 2023.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